

"전교인 봄소풍" 전남 여수여행

순천만 국립공원



여수 케이블카

랍차를 이용해 핵심적인 코스를 한눈으로 관람한 후 아기자기한 한국 정원, 후원 등 우리나라의 궁궐정원, 서민정원 등

을 전교인 봄소풍은 전남 여수권의 볼만한 곳으로 결정됐다.

오동도의 동백은 모두 지고 푸르른 녹색과 또 다른 꽃들로 채워진 오동도 앞 여수항을 내려다보면서 케이블카로 오



동백열차

동도에 도착, 섬을 일주하며 등대와 바다를 구경하고 동백열차를 타고 나오는 코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볼거리다.

이후 여수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이동해 순천만 국립공원 34만평의 광활한 규모에 탄성이 절로 난다. 5월 중순 만개하는 노란 꽃과 2.4Km 20분간 소요되는 관



오동도

에서 산책 및 사진촬영으로 추억을 남길만한 곳이다.

너무 넓어 테마 숲길이나 다양한 전체 관람은 어렵고 일부만 관람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더 좋은 하루를 매듭지었으면 한다. <문화부>



한국정원



성경숨은그림찾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로 옷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이다 (창세기 21장 5-6절) [숨은그림 : 부엌칼, 빵이, 입술, 사과, 삼각자]

5월호 숨은 그림찾기 응모권

그림 속의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5월 29일 마감/추첨) <숨은 그림 : 부엌칼, 빵이, 입술, 사과, 삼각자>

이름:	전화번호:

4월호 정답자 발표

4월호 추첨결과 ▶김호진(평동) ▶정은유(학생)▶하진영(원서)으로 결정되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발행인 : 신상균 목사
총괄제작 : 백운교회문화부장
제작실무 : 백운교회 간행팀
전화 : 043-652-9191
발행일 : 매월 첫 주일
Email: vit2be@naver.com
※이름 이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백운교회 안내 / 백운감리교회는 1904년에 창립된 112년 역사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2016년 "듣고!, 믿고!, 따르고!"

백운향

2016/ 5

Since 1904 "꿈을 이루는 교회" 390-883/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5안길 8 Home Page : www.vit2be.com 담임목사 신상균

[제26호] 2016년 5월 8일 발행 [월간] / 창간 2014. 4. 6

마음의 겨울



담임목사 신상균

을 흘리며 걸어서 도착

한 바투셈빌라 제천백운교회 안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40여명의 성도들이 있었고, 우리들은 저마다 교회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모두 바투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잠시 후 바투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비록 가사는 몰랐지만 우리도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따라 했고, 곧 이어 선교사의 사회로 예배를 시작했다.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말레이시아 바투셈빌라 교회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 정차하여 버스의 짐을 내리기 시작했다. 땀땀

바투 성도들의 특송, 그리고 우리교회 성도들의 특송, 그리고 설교,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나는 금년에 흘려야 할 모든 땀을 다 흘리며 설교했고, 축사, 그리고 부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72살의 여장로님이 부채춤을 추시는데 걱정도 되었지만, 마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도 멋지게 부채춤을 완성해 나가셨다.

우리가 세운 교회,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난후 선교사는 바투 예배당에 대한 보고를 이어갔다. 그 지역 11개교회를 돌보는 바우다 목사의 누나와 매형이 땅을 기증했고, 우리 백운교회가 교회를 건축 했노라고, 바우다 목사는 교회를 건축한 우리교회와 또 멀리까지 찾아와서 봉헌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고, 바우다 목사의 누이와 매형은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교회 간판과 선물로 준비한 수

건, 티셔츠, 초코파이, 그리고 값비싼 키타를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그 곳에 온 아이 중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를 물었고, 가장 어린 6개월 된 아이의 엄마에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바느질로 얻은 소독을 선물로 주었다. 아내는 옷가지와 공책등 한국에서 준비해온 한 보따리 짐을 그곳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었다. 잠시 후 바우다 목사는 웬 아이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아이가 어지럽증을 호소하니 기도해 달라고 해

안수 기도를 해 주었다. 점심을 먹고 작별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실렸다. 우리 백운교회 이름으로 건축되고 세워진 교회, 과연 이 교회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도울 수 있을까?

나는 기도한다. 바투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 도울 수 있기를...

가정의 달 5월

가정, 주님이 주신 첫 공동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4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5월행사 1일:어린이주간 / 5일:어린이날 8일:아버이주간/아버이날 15일:스승의 날,가정의 날 17일:전교인 봄소풍

백운교회